51년 만에 다시 오르는 오페레타 '석가탑'



신동엽문학 입체낭독극 '석가탑'
9월 6~7일 서울 여행자극장

오페레타 '석가탑' 입체낭독극으로
신동엽 타계 50주년 기념 공연
동국대사범대부속여고 학생들 출연
51년 전 학생들 위해 만든 오페레타
당시 자료 공연일에 책자로 발간


1968년 드라마 센터서 초연된 오페레타 '석가탑' 공연 모습.


입체낭독극 '석가탑'에 출연하는 동국대사범대부속여고 학생들과 연출가 김진곤.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詩 '껍데기는 가라'의 신동엽(1930~1969) 시인이 쓴 오페레타 '석가탑'이 51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오른다.

신동엽학회는 신동엽 타계 50주기를 맞아 9월 6일(오후 7시)과 7일(오후 3시, 7시) 서울 여행자극장(한성대입구역 5번 출구)에서 신동엽의 오페레타 '석가탑'을 입체낭독극(낭독극에 춤, 마임, 노래, 가야금 연주 등을 결합) 형식으로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에는 신동엽 시인이 8년 동안 국어교사로 재직했던 명성여고(현 동국대사범대학교부속여자고등학교) 학생 10명이 배우로 출연해 의미를 더한다. 연출 김진곤, 조연출 정연재, 예술감독 초원, 작곡과 음악감독 정민아 등이 함께 한다. 이번 공연은 오페레타를 입체낭독극 형태로 옮기면서 음악을 19곡에서 10곡으로 줄이고 노래 번호, 등장인물 등을 일부 수정했다.

오페레타 '석가탑'은 신동엽 시인이 명성여자고등학교 교사 재직시절 작곡가 백병동과 함께 학생들을 위해 만들었다. 1968년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드라마센터에서 문오장의 연출로 초연됐다. 그리고 더 이상 공연되지 않았으며, 대본과 오페레타 악보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신동엽학회 회원인 이대성이 신동엽문학관에 소장되어 있던 필경등사본을 새로 발견해 학술논문을 발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입체낭독극으로 부활하게 됐다. 초연 당시 공연의 배역은 모두 명성여고 학생들이 맡아 신동엽의 취지대로 학생들에 의한 학생들의 공연이 됐다. 하지만 이 사실 역시도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공연에서는 51년 전 초연 때와 마찬가지로 동국대사범대부속여고 학생들이 출연한다. 윤은채, 박지수, 강현지, 반수아, 김세민, 김소현, 윤여울, 김다영, 서민경, 유혜연 학생이 주인공이다.

정우영 신동엽학회장은 "1968년 초연 이후 이제까지 아무도 되돌아보지 않은 작업을 무대에 올리는 것이다"면서 "창작 오페레타 '석가탑'은 한국 문학사와 한국 음악사에서 다시 평가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동엽의 오페레타 '석가탑'은 현진건의 소설 〈무영탑〉에서 온 것으로 불국사 석가탑에 얽힌 전설 아사달과 아사녀 이야기다. 석공 아사달의 예술에 마음을 뺏긴 수리공주와 공주를 사랑하는 도미장군, 남편 아사달을 기다리는 아사녀의 슬픈 이야기다. 오페레타 '석가탑'은 여러 가지로 신동엽을 조명하게 하는 작품 중의 하나다. 서사시 '금강' 발표 이후 참여시인으로서 평가받고 있었던 신동엽이 학생들을 위한, 학생들과 함께 하는 작은 공연을 추진했다는 점이 무엇보다 의미 있는 대목이다. 또한 문학사적인 면에서도 의미는 작지 않다. 현진건의 소설 〈무영탑〉의 줄거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소설과는 다른 결말을 이끌어냈다는 것이 그것이다. 신동엽은 '멀고 먼 바람 소리'라는 부제를 '석가탑'에 병기했다. 그것은 그가 불국사 설화에서부터 200년 이상 닫혀있던 죽은 결말에 활력을 불어넣으려했다고 볼 수 있다. 이대성 신동엽학회 총무이사는 "우리는 이 공연의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삶의 활력을 체득하고 발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입체낭독극으로 무대에 오르는 '석가탑' 공연이 '멀고 먼 바람 소리'처럼 면면히 이어져 온 아름다운 사람들의 생명력을 끌어들여 내 안의 잠재력을 소중히 돌보는 계기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동엽학회는 신동엽문학관 소장 필경등사본과 팸플릿, 공연사진 그리고 백병동 작곡가의 육필 악보 등 관련 자료들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책자로 엮어 공연일에 발간할 예정이다. 신동엽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신동엽학회와 동국대사범대부속여고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무료다. 관람 희망자는 구글폼을 작성하여 사전예약 또는 당일 잔여석에 한해 현장에서 등록하면 된다. 문의 poet-shin@hanmail.net

해외 유출 고려 문화재를 찾아서

나우회 9회 기획전
'유출된 고려의 아름다움 재현전'
9월 3~30일 월정사성보박물관
10월 2~14일 충남도서관


한봉석 作 목조보살좌상.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산하 전승작가들의 모임인 나우회(회장 한봉석)가 전통문화의 둘레길 만들기 아홉 번째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엔 '고려'다.

2010년 '극락정토, 미타의 미소' 전을 시작으로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과 유출문화재 환수의 필요성을 재현 전시를 통해 알려온 나우회는 9월 3일부터 30일까지 평창 월정사 성보박물관에서 '유출된 고려의 아름다움 재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김범식, 한봉석, 이연욱 등 8명의 나우회 작가가 참여해 나우회가 2014년부터 매년 이어온 해외 유출문화재를 소재로 재현하거나 다른 시작으로 재구성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의 출품작은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 '대고려 918-2018, 찬란한 도전' 특별전에 출품된 외국 박물관, 미술관 소장 우리 문화재 중 고려시대 유물을 중심으로 재현한 작품들이다.

△김범식(경북무형문화재 제37호) 대목장의 '팔작집'은 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금동불감을 목재로 재현했다. △한봉석(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9호) 목조각장이 재현한 '목조보살좌상'은 일본 후모사에 봉안된 14세기 금동보살좌상을 나무로 재현했다. △이연욱(경기도 무형문화재 제 57호) 불화장의 아미타팔대보살도는 일본 교토 조코지에 소장된 14세기 아미타팔대보살도를 재현했다. △박명옥(명화페이퍼아트 대표) 종이조각가의 '관(冠)도 내려놓고'는 '유실된 보관'을 '내려놓았다'는 개념으로 상정해 재현했다. △노정용(문화재 조각기능 제1732호) 조각가의 '태조왕건상'은 북한의 국보 문화재인 태조왕건상을 재현했다. △박연규 조각가의 '석조보살좌상'은 일본 대마도 케이운지와 묘우소우지에 소장된 석조보살좌상을 재현했다. △김판기(지강도요 대표)의 작품은 오사카동양도자미술관이 소장한 청자화형반이다. △김성운의 '옥제당초길상문합'은 12세기에 제작된 청자투각당초문사각합을 경옥으로 재현했다.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소장 석문 스님은 "문화재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 나우회 작가들은 해외 각지에 흩어진 우리 문화재를 찾기 위해 현지를 찾아 실견하고 재현과 재구성 등의 작업을 통해 해외 유출 문화재 환수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알려왔습니다. 이번 전시는 문화재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나우회는 월정사 전시에 이어 10월 2일부터 14일까지 충남도서관 기획전시실에서 전시를 이어간다. 박재완 기자

학생들이 그린 범어사 풍경

'2019 현대의 지각으로 본 678 범어사' 展
범어사 불교문화테마전시관 9월 3일~12월 31일


안나현 作, 비 내리는 불이문.

범어사성보박물관은 9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범어사 불교문화테마전시관(범어사 지하철역 5번 출구)에서 하반기 테마전시 '2019 현대의 시각으로 본 678 범어사'를 개최한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이번 전시는 부산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증 작품으로 열린다. 비오는 날의 고즈넉한 범어사를 자신의 그림세계로 풀어낸 작품 등 다양한 시각으로 그려낸 범어사를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2018년 '범어사를 담다' 展에 이은 테마전시로 수묵, 수채화뿐만 아니라 펜드로잉, 크레파스 등을 이용해 다양하게 그려낸 작품들이 전시된다. 범어사의 역사와 자연을 예비 화가인 학생들의 눈으로 다양하게 해석한 그림들이다. 박재완 기자

